

올 출판시장 키워드 '각.자.도.생'

올해 출판시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페미니즘 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정치 분야 도서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또 혼술·혼밥족처럼 1인가구를 겨냥한 책들도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S(Single)·E(Encourage)·L(Liberal)·F(Feminism)이 트렌드를 이뤘던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예스24가 내놓은 올해(1월 1일~11월 30일) 베스트셀러 및 도서판매 동향 분석에 따르면 '혼자'(Single)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다루는 도서들이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점이 눈에 띈다.

신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가정·살림 분야의 요리책 가운데 집밥 레시피나 블로거 레시피, 냉장고를 부탁해 등 혼자 먹을 요리의 레시피를 알려주는 책으로 해당 분야 내 점유율이 8.4%에 달하며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판매권수는 72.7% 신장했다.

개인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라이트 노벨, 그래픽 노블 등 취향 독서 분야에 대한 관심도 늘어 판매권수가 전년 대비 각각 16.0%, 32.0% 증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기 좋은 시집과 에세이류의 도서도 독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추억의 종이인형', '옛날종이딱지놀이' 등 추억의 놀이를 재현한 도서들도 추억과 감동을 주면서 인기를 끌었고 '스누피'와 '인사이드 아웃' 등 미니피규어가 포함된 캐릭터 도서, '구름이 그린 달빛', '태양의 후예' 등 드라마의 장면을 담은 포토에세이도 큰 반응을 얻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자신 스스로를 다독이고 쉽지 않은 사회생활 속에서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책(Encourage)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특히 자기계발서 가운데 인간관계를 다룬 서적이 전년 대비 11.1% 판매가 늘었고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서 역시 전년 대비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심리 분야에서는 카운슬링·심리치료 관련 도서가 33.9%, 문학 내 에세이 분야에서는 명상·치유 에세이류가 무려 79.4% 신장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그럴 때 있으시죠?', '아, 보람 따위 뭘 했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등이 이런 류의 책이다.

하반기 우리 사회를 강타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정치 비평 관련 도서(Liberal) 판매도 늘었다. 지난 10월과 지난달에는 해당 도서들의 판매가 사회·정치 분야 내에서 각각 20%, 26.1%를 차지하면서 정치 분야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보여졌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 각종 방송에 출연해 재치 있는 입담으로 역사 강의를 진행한 설민석의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과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이 한국사 분야 판매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 역사 분야 도서의 판매권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치 비평과 한국사 도서들을 구매한 독자들 가운데 20대 여성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사에서 2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4.0%로 전년 5.4%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정치 비평도 지난해 5%에서 올해 10.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치 비평 분야에서 주목받은 도서는 주진우 기자, 함세웅 신부의 '악마 기자 정의 세계'와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 함께 쓴 '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등이다. 지난 5월 강남역 폭행사건 여성 살인사건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여성 혐오의 이면이 드러나면서 페미니즘(Feminism)이 주목받은 한 해이기도 했다.

여성·젠더 분야 도서 판매권수는 전년 대비 132.6%로 두 배 이상 늘었고 특히 20대 여성의 구매 비중이 지난해 10.7%에서 올해 26%로 늘었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쁜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의 도전' 등이 이 분야 판매 순위 상위에 올랐다.

예스24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환경 변화와 도서 판매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의 출판 트렌드 키워드를 'SELf'라고 제시했다"며 "자신만을 위해 요리하고, 취미를 즐기는 데 익숙한 각자도생의 처지에 처한 국내 독자들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성공보다는 일상의 이야기에 더 주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혼밥 레시피' 판매권수 증가
취향독서분야 관심도 높아
자존감 회복 도서도 관심사**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인해
정치비평·한국사 분야도 '인기'**

군산야행(夜行), 문화재 야행 사업 중 '최고'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청장 기관표창 수상

문화재청 주관 2016년도 문화재 활용사업인 '군산야행(夜行)'이 문화재청장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본보 12월 7일자 1면> 7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문화재 활용사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군산야행(夜行)이 '문화재 야행'과 '코레일 연계 지역문화유산 관광 열차 및 야행열차' 2개 부문에서 최고 사업으로 평가 받아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 시행한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은 역사문화자원과 야간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산시는 '군산야행!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걸다'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7가지 정취인 7야(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花), 야설(夜說), 야경(夜景), 야식(夜食), 야숙(夜宿))을 테마로 밤에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다.

'군산야행'은 테마가 있는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 등 4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문화 시설의 가치를 재차 높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군산야행과 코레일을 연계한 지역 문화유산 관광열차 및 야행열차는 수도권 소재 관광객을 유치해 코레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군산시는 2017년도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3개 사업(군산야행, 생생문화재사업,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선정돼 총 3억7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송재명 전주전통문화관 관장 한국예총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제30회 한국예총예술문화상 대상 수상자로 송재명(전주전통문화관 관장·화가)씨가 선정됐다.



송 관장은 한지축제, 전라예술제 등 문화기획자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전북 예총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송 관장은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창작활동에 매진 할 것이며 전북 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정해은 기자



'빛'·'물'·'색'의 절묘한 배합

도립미술관 서울관 '이정희 개인전'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 서울관에서는 7일부터 12일까지 '이정희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정희 작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세상을 포용하는 '물'의 마력, 그리고 색감을 조화시키는 '색'의 오묘함을 절묘하게 배합시켜 캔버스에 담아낸다.

이 작가는 수채화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작품에 그려낸다. 이번 전시에선 꽃과 과일, 집과 사람, 계절의 변화 등을 화폭에 담은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수채화는 정물에서 풍경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사람이야기로, 사람이야기에서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인화로 물감이 물에 번지듯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작가의 작품세계는 늘 변화하면서 본질인 '자연'과 '사람'은 변함이 없다.

작가는 작품에서 현실과 이상을 사물과 여백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담아 '무경계'의 개념으로 묘사한다. 자연 속에서 소리를 듣고, 빛을 향하고, 색의 유희는 작가의 정서적 감흥이 다름을 표현해낸다.

작가의 섬세함과 대담한 여백처리하는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상실해가는 인간성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의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정해은 기자

'전북의 문화정책을 묻다' 토론회

오늘부터 2일간 최명희문화관서

초점을 두고 전북의 문화예술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1일차 발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김영민 예술인복지센터장, 부산문화재단의 최윤진 예술진흥팀장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구혜경 정책기획팀장이 맡는다. 이날 자리에선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인복지정책 및 사업의 방향과 타 지역의 사례로 부산의 예술인복지 센터 운영에 대해 들어 보고, 향후 우리 지역과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 사업 및 방향성에 대해

논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는 전북작가회의 김병용 회장, 창작작회 박규현 대표, 고창음악보존회 이명훈 회장과 화가 진창윤이 참여해 정부의 예술인복지와 지역 간의 간극 및 지역 예술인복지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두고 발전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2일차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매개자들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는 성균관대학교 민지은 문화융합

대학원 겸임교수와 전북대학교 청년문화사업단 이선희 팀장이 맡아 큰 틀에서 매개인력의 정의, 역할 및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북의 매개인력 양성 실태 및 효율성에 대해 논할 계획이다.

원광대학교 원도연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는 익산예술의전당 김지연 큐레이터, 전주시립극단 정성구 기획실장,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정성숙 소장,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팀 한지영 팀장이 함께한다. 현장에서 매개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매개인력의 현실과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매개인력 양성(양성 프로그램, 근로환경, 재교육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8일>



▷쥐띠

48년생: 타인의 원망을 살 수 있으니 말을 줄여라.
60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니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 할 수 있다. 휴식이 필요한 때.
72년생: 자신을 낮추면 복이 된다.
84년생: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중해야 할 때이다.



▷소띠

49년생: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운이다. 긍정적으로 전진하라.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라.
73년생: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호랑이띠

50년생: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운이니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62년생: 아랫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 하는 운.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86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토끼띠

51년생: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63년생: 구슬수가 따르나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거니와 전진하라.
75년생: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운.
87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다.



▷용띠

52년생: 아랫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다.
64년생: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는 주변상황을 악화시키니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76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투기는 금물이다.
88년생: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약을 당할 수 있다.



▷말띠

53년생: 지금은 나설 시기가 아닌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운이다.
65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른다.
77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운.
89년생: 정신이 뚜렷하고 무지 않으니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말띠

5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 마찰이 생길 수 있다.
66년생: 매사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고자 하는 일의 70%에 만족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78년생: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양보하는 듯 처신해야 문제가 없는 운이다.
90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이익이 있는 운이니 선심 쓰는 것이 이롭다.



▷원숭이띠

56년생: 건강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68년생: 자신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차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80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다
92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요령을 피우지 말라.



▷양띠

57년생: 청운이 있으니 매사가 순리대로 잘 흘러가며 기쁜 일이 생기는 좋은 운이다.
69년생: 매사 혼자 판단해서 혼자 행동하지 말라.
81년생: 기존의 방식에서 전환점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93년생: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좋은 변화가 도래한다.



▷돼지띠

46년생: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줄 수 있으니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58년생: 허황된 일만 아니라면 작은 성과는 따르는 운이다.
70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하라.



▷돼지띠

47년생: 진실은 통하는 법이다.
59년생: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1년생: 상대를 알집아 보지 마라.
83년생: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범할 수 있다.